기획예산처	보도설명자료	대체불가 대한민국

보도시점 배포 즉시 보도 배포 2026. 11. 25.(수)

폭력피해여성 지원 사업 국고보조율 조정에 따른 영향을 면밀히 점검하고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적극 관리해 나가겠습니다.

< 보도 내용 >

□ ’26.11.25.(수) 한국일보는 「결혼지원금 100만원은 신설… 가정폭력·성매매피해자 지원비 124억 지방에 넘긴 정부」 기사에서,

○ “폭력피해자 지원사업 국고보조율을 대부분 20%p 낮췄다”며, “서울 50%에서 30%로, 지방은 70%에서 50%로 내렸다”고 보도하였습니다.

*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 지원, 가정폭력·스토킹 방지 및 피해자 지원, 폭력피해이주여성지원사업(서울 50→30, 지방 70→50% 등) 사업의 일부 내역사업 보조율 조정

< 기획예산처 입장 >

□ 정부는 내년 예산안 편성 과정에서 **재정지출 효율화** 및 **유사사업 간 국고보조율 통일 등을** 위해 사업별 특성 등을 고려하여 국고보조율을 조정하였습니다.

○ 국고보조율 조정 과정에서 지방재정법에 따라 지방재정관리위원회를 통해 **행안부·지방정부 의견을 수렴**하는 등 **관련 절차도 이행**하였습니다.

□ 국고보조율이 조정되었지만, **서비스 제공 물량** 및 **종사자 인건비** 등은 확대되어, 국비·지방비를 합산한 **전체 사업예산**은 **'26년 대비 증가**하였습니다.

○ **무료법률구조 지원 강화**, **폭력피해자 주거지원**, 수사기관 대상 **2차 피해 방지** 및 **스토킹 예방교육 확대**, **종사자 처우개선** 등 **피해자 보호·지원 기반 구축** 및 **인프라 강화**를 위한 투자를 확대하였습니다.

□ 정부는 국고보조율 조정에 따른 **영향을 면밀히 점검**하고, 폭력피해여성 지원에 **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적극 관리**해 나가겠습니다.

담당 부서	기획예산처 국민복지예산과	책임자	과 장	진민규	(044-214-2910)
		담당자	사무관	전수민	(044-214-2913)

대한민국 정책브리핑
대체불가 대한민국
OPEN 출처표시
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